

금호타이어, 자회사 340억원 채무보증

금호타이어(대표 박삼규·김창규)는 자회사인 Nanjing(南京) 금호타이어가 교통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340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월21일 공시했다.

보증금액은 금호타이어 자기자본의 5.87% 해당한다.

<화학저널 2013/01/22>